

한·인도 국제학술회의 7일 다항관 세미나실

제3회 한·인도 국제학술회의가 오는 7일 다항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본교와 인도 네루대학이 참가하는 이번 회의는 '현대과학 기술의 발달에 대한 철학적 반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송석구(철학)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창술(선학) 교수가 '현대과학의 불교적 반성' △R. Ramaswamy(네루대 자연과학) 교수가 '과학의 발전과 인간의 의미에 대한 고찰' △정승식(인도철학) 교수가 '과학 기술의 발달에 대한 인도철학적 반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MINT 17일 워크숍 개최

밀리미터와 신기술 연구센터(소장=이진구·전자공학 이하 MINT)는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수안보 파크호텔에서 '무선 통신용 MMIC 및 모듈 워크숍 2000'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이동·무선통신 기술의 핵심분야인 MMIC(초고주파회로)와 모듈 분야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본교에서는 신동훈 연구원이 0.1um PHEMT MMIC Amplifier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년 교원 9명 선발

연구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는 연구년 및 해외연수 교원을 선정했다.

2001학년도 연구년으로 선발된 교원은 △황해인(독일학) △안성현(수학) △김성복(경영학) △김동철(회계학) △유창조(광고학) △윤현보(전자공학) △유승룡(건축공학) △안중석(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 △곽준규(교육학) 교수로 모두 9명이며, 2001년 3월 1일부터 약 1년동안 연구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한, 이관재(통계학) 교수는 해외연수 교원으로 선정돼 2001년 9월 1일부터 6개월간 미국에서 연수를 받는다.

참사람, 현혈증 기준

참사람봉사단(단장=송석구·철학)은 지난 1일부터 3일간 '사랑의 현혈증 모으기' 운동을 벌였다.

중앙도서관과 동국관 앞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 결과 약 200장의 현혈증이 모아졌으며, RCY 단원들은 오는 7일 한국백혈병 지원센터가 주최하는 '백혈병 어린이 돕기 행사'에 참가, 기증할 예정이다.

종단과 대학의 긴밀한 상호협력 필요

종단은 투자확충 대학은 인재양성

대한불교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학담)가 주최하는 '동국학원 위상과 발전방안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날 31일 서울캠퍼스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영담스님(중앙총회의원), 장곡스님(중앙총회의원), 삼익섭(행정학) 교수회장 등이 발제를 하고 현각스님(중앙총회의원), 정안스님(종립학교관리위원회 이사), 정용길(정치외교학) 기획인사처장, 김정대 노조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1백여명의 스님, 교수, 직원, 학생 등이 세미나를 지켜보았다.

기조발제한 영담스님은 "최근

교계에서 동국학원의 건학이념과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대학과 종단이 상호협력과 상생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사무처(처장=김선근·인도철학)의 한 관계자는 "종단에서 추천해 선임한 이사스님들이 있는데도 종립학교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이 동국대학을 이중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세미나가 계획단계부터 준비·실행단계까지 법인과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진행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삼익섭 교수회장은 "교수들의 연구·교육활동이 세계적 수준으



'동국발전' 세미나가 지난날 31일 덕암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로 발전하고 좋은 학생들이 배출돼 사회 곳곳에서 활동할 때 동국대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용길 기획인사처장은 종단과 동대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동대는 불교발전을 위한 학술연구와 함께 종단운영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 내어야 하고, 종단은 우수교원확보와

우수학생 선발등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대 노조위원장은 "불교종합병원 건립과 같은 중요한 사업 완수를 위한 재원 마련에 종단은 우려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선 기자
ppuzic@dongguk.edu



4번타자 강기태 선수가 타격하는 모습.

야구부 올들어 두번째 준우승

김영배 호투 불구 아쉬운 고배

본교 야구부(감독=한대화)는 '제50회 전국종합야구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예선부터 고려대, 성균관대 등을 차례로 꺾으며 결승에 진출한 본교는 지난날 30일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연세대의 경기에서 6대2로 패했다.

본교는 1, 2회에 상대 투수의

난조로 2점을 선취 득점했으나 3회초 연속 안타를 맞으며 연대에게 1점을 내주었다. 이후 양 팀은 연이은 득점기회를 무산시키며 8회까지 득점 없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2대1로 앞선 9회초 상대타자 이우인에게 동점 홈런을 허용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곧바로 투수를 서승화로 교체한 본교는 연이은 수비실책으로 진루를 허용하며 연대에게 4점을 내주며 6대2로 역전 당했다.

이날 선발로 등판한 본교 김영배 투수는 9회까지 2점만 내주며 호투했으나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그러나 본교 야구부는 올해 2번째로 준우승을 차지하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총학, 김흥민·김덕기조 단독출마

경주캠 총학 후보등록 오늘(6일)까지

2001학년도 중앙지구 선거 후보자 등록이 지난 3일 마감됐다. 그 결과 서울캠 제33대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 후보로 김흥민(지교4)·김덕기(경영3)조가 단독 출마한 것을 비롯해 총대의원회는 유승우(아시아지역4), 총여학생회는 정=정지숙(회계2)·부=양김유미(영문2)조, 졸업준비위원회는 문영수(토목공3) 후보가 모두 단독 입후보했다.

각 후보의 선거 구호는 다음과 같다. △제33대 총학생회 김흥민·김덕기조=자주 동양의 죽마고우 △제33대 총대의원회 유승우=240 대의원의회의 주춧돌, 함께 만들어 가는 참동양의 모습

△총여학생회 정지숙·양김유미=공감의 가능성, 열려있는 커뮤니케이션 △졸업준비위원회 문영수=소중한 대학시절, 자신 있는 사회진출. 투표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오는 8일 오후 1시 중앙도서관 앞에서 합동유세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동아리 연합회는 지난날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았으나 입후보자가 없어 내년 3월로 선거가 미뤄졌다. 경주캠 총학생회 입후보자 등록은 지난 30일부터 오늘(6일) 오후 5시까지이며, 총여학생회 정·부 입후보자 등록결과 이현(고미사3)·한영은(정보산업3)조가 단독 입후보했다.

복수전공 신청 오늘(6일)부터 3일간

오늘(6일)부터 8일까지 2000학년도 2학년 2학기 재학생 복수전공신청을 실시한다. 학생소속 단과대학 교과과에서 접수하며, 결정 및 확정공고는 오는 17일이다.

지난호(제1305호 10월30일자) 경철행정학과 동문 장학금 기부 기사중 기부자를 경호회사에서 활동하는 동문에서 경호회사로 정정합니다.

고수동정

▲박정국(화학공학)=지난 5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학회 참가 및 발표.
▲원치선(전자공학)=지난 1일부터 오는 7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ACB Multimedia Conference 참석.

지면안내

광수생각으로 본 조선일보 4면



현재 사회각계 지식인들이 조선일보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광수생각'을 통해 조선일보를 바로 알아본다.

병역문제와 해결방안 5면

미당 서정주 선생의 자취를 좇아 7면



인연(因緣)

정성본 (불교문화대 선학)

불교에서 인연이란 말은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교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의 원리가 모두 인연이란 한 마디에 토대를 두고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연의 인(因)은 어떤 사물의 본질입과 동시에 원인이며 씨앗이다. 연(緣)은 원인인 씨앗이 싹이 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주위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씨앗인 인(因)은 사물의 근원이 되고는 있지만 홀로 싹이 돌아 날 수가 없으며, 반드시 싹이 날 수 있는 환경인 연(緣) 즉 물이나 바람, 토지나 흙 등의 조건이 구비되지 못하면 언제나 씨앗 그 자체로만 남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씨앗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싹이 버리는 결과가 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씨앗과 환경의 인과관계를 단순한 생물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일체의 모든 존재의 본질로 밝히고 있으며, 또한 씨앗은 종생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의 본성인 불성으로 비유되고 있다.

불성인 인(因)이 없으면 부처가 될 기본적인 본질이 없는 것이며, 또한 불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조건이 되는 연(緣)을 구축하지 못하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즉 불법을 만나야 하고 눈밭은 스승의 가르침으로 정법을 배워야하고 같이 절차 탐마 할 수 있는 좋은 도반과 수행의 도량 등이 잘 구비되어야 올바른 불도를 수행하여 각자가 부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각자 스스로 자기의 성스러운 불성을 잘 가꾸어 깨닫고 부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스승과 도우, 수행 생활에 알맞은 환경, 조건, 수행장소 등의 여러 인연을 골고루 잘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인연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조화롭게 살리지 못하고 말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다. 좋은 불성인 인(因)을 좋은 인연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각자 스스로 끊임없는 노력과 정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기 투쟁의 노력과 정진이 수행이 다른 아닌 좋은 환경과 조건이 되는 연(緣)인 것이다.

발전기금 ARS 7000-119

보석같은 지성의 산실 동대학술상·문학상과 함께하십시오

제38회 동대 학술상

- 모집분야: 인문과학상 - 본상 및 가작 사회과학상 - 본상 및 가작 자연과학상 - 본상 및 가작
- 응모요령: 3개분야 모두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제출기간: 2000년 11월6일부터 12월7일까지
- 시 상: 인문과학상 - 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사회과학상 - 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자연과학상 - 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직과 함께 발표
- 입상작발표: 2001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제15회 동대 문학상

- 모집분야: 시부문 - 본상 및 장려상 소설부문 - 본상 및 장려상 평론부문 - 본상 및 장려상
- 응모요령: 시부문 - 3편 내외 소설부문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평론부문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제출기간: 2000년 11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 시 상: 시부문 - 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부문 -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부문 -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직과 함께 발표
- 입상작발표: 2001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불교가사 원전연구 출간

출판부(부장=김병수)는 순수 불교가사 108편을 모아 '불교가사 원전연구'를 출간했다.

본교 임기중(국문학)교수가 집필한 '불교가사 원전연구'는 원효대사와 춘원 이광수 등의 작품을 원전과 함께 개별작품을 각각 해석해 놓았으며, 불교가사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해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평이다.

역경원, 새책 2권 발행

역경원(원장=김성구)은 지난 1일 '역대삼보기'와 '일체경음의 4', '속일체경음의 3'권의 책을 각각 출간했다.

'역대삼보기'는 일종의 대장경 목록으로 고려대장경의 역사와 번역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정리했다.

어휘사전적인 '일체경음의 4'와 '속일체경음의 3'은 어원과 고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 대장경 해석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속일체경음의 3'은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진 100권의 일체경음에서 빠진 내용을 후세에 추가, 편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역경원의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 '일체경음의 4' 다섯 권이 더 나오면 한글대장경의 번역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생협이사회 내일 개최

생활협동조합(이사장=김진철·정치외교학) 제26차 이사회 회의가 내일(7일) 오후 1시 30분 생활협동조합 사무국 회의실에서 열린다.

김무봉(국문학) 교수, 유명곤(산공4)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생활협동조합 이사들이 참가하는 이날 회의는 생활협동조합 사무실 공사, 상륙된 매장공사 등 추경예산 지출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KDKSV 공개세미나

독일통일 10년을 맞아 한국과 독일의 통일과 국가발전 경험을 상호교환하고 양국 국가행정의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독일 학술교류처(DAAD)와 본교 후원으로 구성된 '한독국가혁신위원회' 주최 세미나가 오늘(6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본교 자매대학인 독일국립슈파이어행정대학원 Dr. Rainer Pitschas 교수가 '통일독일의 국가발전 전략과 행정혁신의 최근경향'이라는 주제로 공개특별강연을 진행한다.

단대선거 오는 7일부터 3일간

후보등록 저조 ... 미등록 단위 8일부터 재등록

2001학년도 단과대 학생회 정·부 입후보자 등록 결과 문과대, 생명자원과학대, 사범대 3개 학생회와 불교대와 이과대 대의원회 후보가 등록했다.

문과대는 '단절과 소외를 넘는 가슴 벅찬 몸짓, 일천 명진 권리 선언'이라는 구호 아래 정=이재광(철3)·부=신은숙(사3)조가 △북지와 편의 △공동체 문화 복원 및 활성화 등의 공약을 내걸고 출마했다.

생명자원과학대는 이난희(생자부2) 후보가 '500생자인과 함께 만들어 가는 통일세상'이라는 구호로

△학생회 체계강화 △홈페이지 구축으로 학생 의견 수렴 강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사범대는 정=주진원(국교3)·부=박덕수(영교3)조가 '통일의 다짐! 예비교사의 어깨걸기!'라는 구호 아래 △6·15선언 지지관찰 △대학문화 제 모습 찾기 등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다.

한편, 불교대 대의원회 정미희(불교학부2) 후보는 '투명성속에 바라는 불교대 대의원회'라는 구호로, 이과대 대의원회 김규배(물리3) 후보는 '새천년, 새 빛깔 연연하다. 이과대!'라는 구호로 각각 단독 출

마했다.

이번 선거는 오늘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 각 단과대 앞에서 입후보자들이 유세를 치른 후, 내일(7일)부터 3일간 문과대는 명진관 로비, 생자대는 해화관 2층 로비, 사범대는 학림관 앞에서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투표를 실시한다.

출마자가 없는 이과대와 법대, 사회과학대, 경영대, 예술대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연장하며, 21일부터 23일까지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불교대와 공과대 학생회 선거는 내년 3월에 시행된다.



物理(?) ...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팔정도 앞에서 물리학과 학술제가 열렸다. '골든벨'에 참가한 한 학생이 물리를 한자로 쓰는 문제에서 '이치 리(理) 대신 '마을 리(里) 자를 써 주위 학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박지영 기자 lemontree@dongguk.edu

생협학생대의원대회 오는 10일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유명곤·산공4)는 오는 10일 오후 3시 다함관 세미나실에서 '생협 학생 대의원대회'를 연다.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학생 대의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이번 회의는 △생협 활동 및 사업 △생협 독립법인 추진 경과 △이사회 결과 △감사 결과 △예산책정에 대한 보고가 각각 있을 예정이다.

이어 2000년 생협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2001년 생협의 위상과

독립 법인 추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별전형 원서교부

교무처(처장=신재호·전자공학) 학생선발실은 오늘(6일)부터 전반기 특별전형 원서교부에 들어간다.

외국어우수, 내신우수, 추천, 특기자 등이 선발대상이 되는 이번 전반기 특자전형은 오는 23일 원서접수를 시작하며, 오는 29일부터 전형에 들어간다.

졸업앨범비 환불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박병남·무역4)는 지난날 3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희망자에 한하여 졸업앨범비를 환불해주고 있다.

환불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하루 전 전화신청을 한 뒤, 환불시간에 맞춰 학생증과 등록금영수증 또는 재무회계비 확인서를 지참해 졸업준비위원회를 방문하면 된다.

환불은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통계조사연구회 화재사건

꺼진 불 "보고 또 보고"

자발적 대책마련 ... 안전한 자치공간 확보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내 공간 역시 화재의 위험에서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31일 학생회관 3층 통계조사연구회(DUSSA) 동아리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담뱃불이 쓰레기통에 옮겨붙으면서 일어난 일어서서 일상생활에서 화재 예방에 얼마나 주의의한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화재 사건은 학생을 따로 처벌하지는 않은 채 화재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성명서와 반성문 대자보를 쓰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와 함께 동아리 연합회를 비롯한 여러 동아리는 학생회관 화재 예방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담당 부서는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해 보다 안전한 화재 예방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본교 사무처(처장=황영수) 시설관리팀은 화재 예방을 위해 매년 두세 차례 정도 소방관을 초청하여 실형실 조교와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소방교육을 실시해왔다.

뿐만 아니라 각 건물마다 열감지기를 설치, 각 층에 소화전과 소화기를 구비해 화재

에 대비하고 있다.

시설관리팀 조성문 과장은 "화재 예방을 위해 교내에서 석유나 부탄가스와 같은 발화성 물질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화재 현장에도 MT패 사용하고 남은 부탄가스가 있어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학생복지실은 교내에서의 모든 취사행위와 허가 받지 않은 난방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학생회실이 나 동아리방마다 공문을 보내 화재 책임자를 선정하여 화재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생회관이나 각종 화학 약품을 다루는 실험실이 이뤄지는 과학관의 경우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가 더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생활하는 학내 공간이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기 위해 학내 모든 구성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염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특강안내

초청특강 '우주와 인간 ...' 오는 9일 중강당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학생복지실은 오는 9일 오후 5시 명사 초청특강을 개최한다. 본관 중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은 '우주와 인간, 그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주제로 본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서광조 박사가 강연할 예정이다. 서광조 박사는 '21세기 한국사회와 우리의 삶', '그 원초와 시작을 찾아서' 등을 저술했으며, 현재 세종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문화예술대학원 '한국음악의 정체성2' 특강

문화예술대학원(원장=안민수·연극학)은 오늘(6일) 오후 8시 덕암세미나실에서 '한국음악의 정체성2'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지난 학기에 있었던 '한국음악의 정체성1'에 이어, 한국음악의 발전 방향에 대해 국립창극단 최종민 단장이 강연할 예정이다.

회전문대

사물함의 이중생활

O...얼마 전 한 학과에서 일부 사물함이 강제로 철거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사물함을 무단으로 사용한 학생들이 몇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물함을 비우지 않아서라고.

이들은 다른 학생들이 사물함을 신청할 기회를 막는데다가 정식으로 사물함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허탈하게 만든다.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철거된 사물함에서 나온 책 한 권, '사물함, 탐 먹으면 공짜로 쓴다'"

사이버지리설

O...도서관 1층 정보검색실에는 여기 저기를 기웃거리는 방문자(?)들이 많이 있다는데.

알아보니, 컴퓨터를 쓰려고 기다리는 동안 먼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눈치작전의 하나라고.

이는 기다리는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온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합리한 일도 발생하게 하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알아요? '한줄서기'는 누구에게나 편하다는거...?"

오빠 달려

O...오토바이 굉음으로 동약 곳곳의 가을 정경이 망가지고 있다는데.

알아보니, 수업시간에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에 많은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교정을 걷는 학생들은 썩하고 달리는 오토바이 때문에 신변의 위협까지 느낀다고.

이에 오토바이 소지자들의 반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으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중국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dongguk.com(동국닷컴)"

농구맨이야

O...농구를 하던 학생들이 빠져나간 만해광장에는 음료수 캔들만의 경기가 벌어진다는데.

알아본즉, 농구에만 열중한 학생들이 음료수를 먹고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농구도 좋지만 자신이 마신 캔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농구인으로서 지켜야 할 매너가 아닐런지.

이에 캔을 버리던 한 학생 왈, "어렸을 적 내 꿈은~ 매너 있는 농구맨이야~"

벤처창업에 나도 도전?

벤처창업을 계획 중이거나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한 강좌가 준비되었습니다. 창업관련분야의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특별히 강사로 모셨습니다.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행사명

대학생 창업강좌

일시

2000. 11. 15(수) 오후2시

장소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

강좌내용

- 정부의 벤처지원제도(서울중기청 민영연 지원총괄과장)
- 창업과 기업가정신(동국대 박춘엽 교수)
- 벤처창업과 자금조달전략(다신벤처(주) 이승훈 부장)
- SOHO창업 성공전략(중기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최용혜 상담사)
- 벤처기업법무의 세무의 이해(Law Media Group대표 배재권 변호사)

서울중소기업청·동국대학교 창업지원단

2001-1학기 장학금 공고안내

2001학년도 1학기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장학명(장학금액) : 우수장학(등록금 30%)
단과대학수석장과 및 전공(학파)수석장학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순에 따라 선발함.
o 신규 교외장학생도 우수장학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에서 우선 선발함.
2.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자
o 2000-2학기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o 교내·외의 타 장학금을 받는 자 제외
3. 신청기간 : 2000. 11. 15(수) ~ 28(화)
4. 신청장소 : 해당 학업지도교수
5. 신청방법 :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제출
6. 신청서 평가기준 : 아래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가. 학업성적 : 60점
나. 사회봉사 : 10점
다. 가정형편 : 20점
라. 학업지도교수평가(학과특성 및 기여도) : 10점
o 항목별 세부기준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해당 대학 교학부에 문의바람
7. 제출서류
가.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
본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에서 다운받아서 사용
나. 사회봉사인증서
o 회의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봉사기관에서 작성한 봉사활동 증명서류를 해당 대학교학과에 제출함.
o 동국참사랑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자동 점수처리됨.
다. 재산세(비)과세증명서 등 가정형편을 증명하는 서류
라. 학업성적은 자동으로 점수처리됨
※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음.

학 생 처

겨울 계절학기 공고

1. 개설대상 교과목
2000학년도 1, 2학기 개설 교과목 및 계절학기 전과목(사이버 강좌 제외)
2. 수업일정
가. 2000.12.18(월) ~ 2001. 1. 8(월), 월~토요일 16일간
나. 공휴일 제외
3. 강좌개설 기준인원
가. 전공 및 교외교과목 : 7명 이상, 나. 교양교과목 : 10명 이상
4. 수강자격 및 신청학점
가. 수강자격 : 2000학년도 2학기 재학생,
나. 신청학점 : 6학점 이내
5. 성적처리
가.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만 포함되며, 장학생 선발 및 학사징계등 정규학기 학점취득과는 구별됨.
나.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F학점(과락)은 성적증명서에 등재됨.
6. 수강신청 및 접수
가. 기간 : 2000.11.8(수) ~ 11.10(금), 3일간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1)서울캠퍼스 : 교무처 학사지원실(야간 대학원은 야간강좌 교학처)
(2)경주캠퍼스 : 경주캠퍼스 교무처 학사지원실
다. 제출서류 : 계절학기 수강신청서(소정양식) 1매
라. 수강료
(1)개설 교과목 1학점당(교양필수교과목은 시간당) ₩65,000.
(2)개설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수강자 자기부담.
7. 개설대상 교과목 및 수업시간 확정발표 : 2000.11.20(월).
8. 수강신청 확정기간
가. 기간 : 2000.11.22(수) ~ 11.23(목), 2일간
나. 제한 : 최초 수강신청후 폐강, 시간중복의 사유 발생시에만 가능

교 무 처

평생 교육 실습 신청서 접수

2000학년도 동계 평생교육실습(구 '사회교육실습')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대상자는 신청하기 바랍니다.

아 래

1. 신청자격: 평생교육과정(구 '사회교육전문요원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3.4학년 재학생
2. 접수기간: 2000. 11. 6(월) ~ 11. 10(금)
3. 접 수 처: 사범대학 교학과 (신청서 사범대 교학과 비치)
4. 실습기간: 동계방학중 4주간

사범대학

고승초청법회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는 무진장 큰스님(조계종 전 포교원장)을 초청하여 법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불자들의 동참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 2000. 11. 14(화) 오후 4시
2. 장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3. 대상 : 동국대학교 교직원 및 일반신도(누구나)
4. 문의 : 정각원 2260-3016

정 각 원

북·미 공동성명과 관계개선 논단

상호이해 절충으로 북미간 새로운 관계 수립

북, 경제지원 보장 받고 미, 미사일 개발 포기 얻어내

미국은 북한에 대해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권유해 왔지만 막상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자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인 영향력 축소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받게됨에 따라 핵미사일 협상을 통한 시할 가능성과 더불어 남북 화해분위기로 인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논의되는 점을 유의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협상력 약화에 대한 우려는 최근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며 미사일 협상에도 타협적으로 나오므로써 해소되었다.

북한은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내에 북·미 관계개선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어 내년에 새로 출범하는 미 행정부가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급진전되는 북·미관계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중단시키으로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라는 세계전략의 최우선 과제를 충족시키는

한편,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대북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계개선 필요성에 대해 양국의 이해가 일치함으로써 최근 북미관계는 급진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월 9~12일 조병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특사로 미국에 파견했다. 조명록 특사는 클린턴 대통령,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등과 회담을 개최한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북미 공동선언은 양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공식 천명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미사일 협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둘째, 미국이 북한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경제협력 확대에 합의함으로써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 및 경제지원을 보장받았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을 활용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방문도 합의되었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10월 23~24일 북한을 방문하여 대미 관계개선을 원하는 김

정일 위원장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김정일 위원장은 2차례의 회담을 통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미사일 개발, 외교 대표부 개설, 한반도 긴장완화 등 양국 현안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이 회담에서 양국 관계개선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북한 미사일 문제에 관해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제3국에서 인공위성을 대리 발사해주고, 중단거리 미사일 수출은 경제협력 자금 지원 등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면 포기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도출한 것이다. 그러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여건 조성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였는 바, 더 이상의 성과가 있어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 지속적 진전 전망

미국과 북한은 1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팔라렐푸르에서 미사일 전문가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북미 미사일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클린턴 대통령은 11월 7일 미 대통령 선거 이후에 방북 여부를 최종



김국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후가 될 것이다. 클린턴이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간 현안문제들을 일괄타결하게 되면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은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2+2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개방적인 자세를 고려해 볼 때 북미관계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현재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기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지 불확실한 상태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집권해도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동국발전, "말 보다 실천"

교수, 직원, 학생 등 모든 대학 구성원들의 관심을 모으며 지난달 31일 '동국학원 위상과 발전 방안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조계종 산하 종합학교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종단차원에서 학교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종단과 학교의 관계에 대한 원론적 논의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종단이 동국학원을 설립했으므로 종단 산하 기구인 종합학교 관리 위원회가 동국학원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모든 사학은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학교운영은 학교법인, 즉 재단이 하게 되어있다.

본교의 경우 종단은 재단 이사 13인 가운데 9명을 조계종 재적 승려로 선임해 학교운영을 담당하게 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단을 통한 관리운영을 도의시키고 종합학교관리위원회가 직접 운영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인다. 대학운영의 핵심인 인사권과 재정권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재단으로 넘어갔으며, 최근에는 학사운영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그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 여론과 함께 사립학교법 재개정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본교는 조계종 산하 종합학교로서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대학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충분히 못한 재단전임금 등 학교 발전을 위한 제반 여건의 충족필요성을 공유한 만큼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인 투자재원의 확충, 우수교원의 다수 확보 등을 위해 종단과 재단의 적극적인 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동대 발전이 곧 불교발전이라는 인식의 공유속에 학교와 종단이 합심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취업행사 적극적인 참여 필요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 대학마다 취업률 제고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최근 경기가 좋지 못해 개별적으로 취업대비 자격증을 위한 요구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경주캠퍼스의 취업 담당 기구는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진로카드 작성은 물론 취업특강, 무료 직업 선호도 검사를 매년 실시해 왔고, 기업체 방문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또한 각 지역 대학마다 치러지고 있는 취업채움 박람회에 본교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취업지원팀과 총학비대위 취업대책국, 그리고 졸업준비위원회가 연계해 취업가이드 역할은 물론 다채로운 취업행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취업의 문턱 앞에 선 졸업예정자들의 참여는 극히 저조하다. 심지어 취업진로카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수라는 결과도 나타나 큰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본교의 취업특별홍보위원회가 구성된지 오래다. 각 단과대 학장, 학과 교수들이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기업체 홍보와 취업전략 구상을 통해 중·장기적인 사업을 계획해 제자들의 취업에 발벗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졸업예정자들의 무관심이 지속된다면 이는 자기의 취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본교의 취업률을 저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현재 학내에서는 행정기구와 학생회가 서로 연계해 다양한 취업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졸업예정자들은 물론 일반 재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미래를 설계해야 하지 않을까.

인권영화제를 통해서본 한국노동인권의 현실

영화속 투영된 비참한 노동자의 삶

생존문제 해결하는 인권법안 마련 기대

모든 인간의 평등한 인권과 존엄성을 얘기하며 1996년 '표현의 자유'를 위해 사전심의를 정면으로 거부한 채 시작된 인권영화제.

지난달 27일부터 6일간 진행된 제5회 인권영화제에 참석한 관객들은 영화를 즐기며 들쭉거리기보다 숙연함에 젖을 때가 많았다. 범죄보고, 미군기지, 동성애 등을 소재로 한 인권영화제는 흥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대중영화와는 다르게 어둡고 비참한 현실을 영상에 담았기 때문이다. 특히 몇몇 영화들은 상영 뒤 패널들과 토론시간을 진행해 인권문제에 깊은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번에 출품된 국내 작품은 총 9편으로 △외국의 인권 문제 △인혁당 사건의 진실 △결순가정과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아픈 현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성노예로 살아가는 매춘여성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시도했다. 끊임없이 인간의 생존과 존엄성을 위협하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과 맞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인간의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98년 6월 현대중기산업의 퇴출 과정에서 정리해고된 1100인의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450일간의 투쟁 기록 '인간의 시간'(태준식 연출)에 대해 인권운동사상방서준식 대표는 "다른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노동자의 투쟁 속에 녹아있는 '인간'의 참모습이 우리에게 공감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물결이 우리 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구조조정과 해고자 문제를 낳았고, 이 영화는 이러한 노동현실에 관한 기록이다. 후두암에 걸려 힘겹게 투병생활을 하는 한 실업자는 "토사구팽, 옛날엔 회장님이 중장비를 아껴 줬는데... 이젠 퇴출시키려고 거들떠도 안봐.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걸까?"라며 한숨만 쉰다. 평생을 한 직장에서 몸담고 충성했건만 얻은 것이라고는 생활고와 병마뿐인 비참한 노동인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사회 약자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을 그대로 폭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98년 현대자동차에서 정



리해고된 식당아줌마 144명의 복직투쟁을 담은 '평행선'(이혜란, 서은주 연출)은 약 3백명의 식당 노동자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사측의 일방적 해고조치에 여성 노동자들은 목숨건 단식과 알몸투쟁을 감행하지만 이들의 간절한 염원은 대부분 남성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간부들과 사측간 타협으로 실패하고 만다. 힘없는 여성 해고자들에 대한 노조와 사측의 입장은 그리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여성 노동자들은 고용에 대한 불합리와 더불어 여성으로서 성차별까지 받게 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 인권과 평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확대되었다. 빛나는 영광에 가려진 노동인권의 현실은 구조조정과 실업문제 등으로 얼룩져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인권정치 선언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반인권법안에 대한 개혁입법을 예고하고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 새롭게 마련되는 법안은 근본적인 생존문제를 해결하여 진정한 인권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부주관 백승석,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김진아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하이텔 ID dgpress 나무누리 ID 동대신문 / 천리안 ID dgupress
구독문의 :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68 팩스 (054)770-2067

동약론

무관심 vs 무책임



“힘찬 반미의 깃발 높이~ 자주민주통일 그 날까지~”

지난 8일 경주캠 원효관 중정 앞. 어둠이 어스푸레 깔리기 시작할 무렵, 삼삼오오 모여 앉은 학생들의 심상치 않은 표정이 엿보인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 불빛 아래 울려 퍼지는 의미 심장한 노랫소리는 몇몇 학생들의 가슴속에만 머물러 있는 듯 하다. “아! 저기 뭐야? 어디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나 했더니 뭔가 재미있는 행사가 있나봐!”

이제 막 수업을 마치고 중정을 빠져나가는 두 남학생이 한바탕 울동이 벌어지고 있는 무대로 시선을 돌리지만, 잠시 지켜보고는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뒤돌아서고 만다.

“반미 문화제? 에이, 이상한 거잖아. 저런 것은 관심 없어!”

냉정하게 뿌리치는 모습이다. 그리고 뒤이어 폭탄이 쏟아지는 매형리의 풍경이 담긴 영상물이 상영되고, 클린턴과 김대중 대통령의 대화가 이어지는 상황이 보여진다. 하지만 무관심에 젖은 두 학생의 뒷모습은 점점 더 멀어져 갈 뿐이다.

“너 아까 텅 빈 무대 봤지? 솔직히 말해서 이 비 오는 날, 누가 그걸 보고 있겠어?”

“그래, 맞아. 반미는 운동하는 학생들의 몫이지,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잖아?”

이 두 남학생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서로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한다.

오늘날 노근리 양민학살에서부터 한강독극물 방류사건까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한의 반미열풍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학생회 조직의 힘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고 여론을 모으는 일에서조차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바로 대학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의식 구조의 분단상태를 증명해 주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금 온방골을 찍시는 빗줄기 속에서 유유히 사라져 가는 학생들과 조라한 행사를 이어가는 스무명 남짓 되는 학생회 간부들의 괴리된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쓸쓸한 맘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反朝鮮日報

광수생각, ‘생각’은 없고 ‘광수’만 있을 뿐입니다

- 좇선생각

‘광수생각’이 ‘조선일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어쩌면 이 만화가 조선일보의 다른 어떤 기사보다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독자들의 연령과 성별 그리고 직업 등에 따라 조금씩 호감도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광수생각은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에게 이 만화는 콜라처럼 달콤쌔콤한 청량음료인 것이다.

달콤쌔콤한 바로 이 콜라 맛은 광수생각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면서 문제이기도 하다. 맛으로만 치면 나무랄 데 없는 독특한 것이지만, 영양가는 전혀 없고, 게다가 강한 중독성까지 유발하는 속성을 지닌 콜라는 조선일보의 광수생각과 빼닮아 있다.

그래서 다수의 젊은 독자들은 신문을 펼쳐들자마자 ‘신빨리’의 달관한 듯한 세계를 거의 무의식적으로 섭렵하게 되고, 거기서 얻는 무의미를 다시 트림으로 토해 낸다.

순결주의·휴머니즘 가면을 쓰고

독자들은 ‘광수생각’에서 제시하는 세상의 이치에 아주 쉽게 동의한다. 이 만화에서 전개되는 이야기가 너무나 훈훈하기 때문이다. 아들과 아버지가 나누는 따뜻한 사랑과 형과 아우 사이의 철철 넘쳐나는 형제애를 과연 누가 부정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광수생각’에는 독자들로부터 금 비판의 경계를 완전히 흐트러뜨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잔재주가 스며있다.

원초적 감성에 주로 호소하는 세계관,

그것이 ‘광수생각’이 추구하는 가치인 것이다.

‘광수생각’에 담겨있는 이런 순결주의는 이 만화가 폭력과 섹스 그리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적 차이를 인위적으로 거세하고 오로지 사랑과 평화로움만이 존재하는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광수생각’은 ‘조선공화국’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인 셈이다. 조선일보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한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가치와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동반자인 것이다.

탈정치화는 정치적 전략

여기서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탈정치화 작업이 사실은 지극히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점이다. 탈정치적 무의미는 만화에서 얻을 수 있는 의미가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이는 또 ‘광수’가 세상을 달관해서 자신의 철학적 입장을 재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복잡한 현실 세계를 환원적 논리로 왜곡시켜 이야기를 결말 짓는 단순한 사고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기증산아 생산한 적극적인 의미와 과정의 산물인 것이다.

따라서 ‘광수생각’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오락일 뿐이고 동화같은 만화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현실세계의 물질적, 역사적, 정치적 관계와 영향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지극히 편파적이고 왜곡된 세계관인 것이



연재를 기획하며

지난 8월 지식인 기고 거부 선언 이후 최근 사회 각계 지식인들은 조선일보 거부 시민연대를 발족했다. 이에 본사 사회부는 대학언론으로서 허위·왜곡 보도를 일삼아 오던 조선일보의 실체를 알리고자 ‘조선일보 제웃 찾아주기’라는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 ① 조선일보 역사 바로보기와 실제 알리기
- ② 신문 편집자물성 확보와 소유구조 개선
- ③ ‘광수생각’으로 본 조선일보

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반대급부는 물론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는 단산적이고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를 자연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아주 합리적인 모습을 한 언론으로 착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정치적 효과가 있다는 말이다. ‘광수생각’의 존재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현실은 휘발되고 모호하고 정체를 알수없는 ‘따뜻함’만 남는다

‘광수생각’에서 사회적 갈등을 배제하는 것은 결국 현상유지에 초점을 맞춘 이데올로기적 행위이다. 따라서 사회변동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만화의 이런 텍스트 전략을 도와주는 길은 독자들이 그것에 흠뻑 빠져들어 즐기는 일일 것이다. 반대로, ‘광수생각’에 담겨있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폭로하는 것은 이 만화의 정치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말 할 나위 없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만화 읽기전략은 후자임이 분명하다.

이를 위해 실천 가능한 방법은 독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광수생각’을 읽어내는 것이다. 때로는 지배적 의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모호한 텍스트는 가법적 의미를 비를 것이며, 그밖의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받아들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입장과 적절히 타협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광수생각’도 높은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혹 반해게모니적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용자들은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 흥
문화연구원

‘광수생각’은 이 시대 최고의 문화캐릭터를 만들어 냈을 뿐 아니라, 대대적인 인기를 누리는 ‘커뮤니케이션 텍스트’다.

‘안티조선’운동 단체 알아보기

‘우리 모두’ 함께 하는 시민운동으로...

전국 도보 일주·시민강좌 등 활동

안티조선을 외치며 전국을 누비는 사람이 있다. 그는 다름아닌 ‘인물과 사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인사모)’의 부산 지역 회원 김동호(27)씨. 지난 달 22일 부산을 출발한 김씨는 4일 현재 광주를 지나고 있고 충청, 인천, 서울을 거쳐 다시 부산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김동호씨가 전국 도보 일주를 강행하며 안티조선운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사모의 서울·경기지역 심병호 대표는 “습관적으로, 끊지 못해서 조선일보를 보는 시민들이 많다”며 “직접 시민들

인 ‘대학언론인 연대 조선일보 규탄대회’에 이어 오는 12일에는 단독으로 규탄대회를 벌일 예정이고, 전국적으로 ‘전대기권 1만인 서명운동’을 계획중이다.

또한 김효섭 의장은 “앞으로 각 대학신문에 안티조선 공동광고를 싣는 것을 준비중이고, 취재거부 등 일상적인 안티조선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이 참여한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이하 안티조선 연대)도 ‘조선일보 바로알기’ 시민강좌를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중이다.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네티즌 모임 ‘우리모두’와 ‘인물과 사상’ 사이트.

을 만나 부풀려진 판매 부수 등 조선일보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김씨의 도보행진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인사모는 ‘인물과 사상’ 홈페이지 토론방과 지역 모임 등을 통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 논의가 한창이다.

한편, 네티즌들의 참여도 눈에 띈다. 조선일보 반대 사이트 ‘우리모두’ 게시판에는 연일 수 많은 네티즌들이 조선일보 반대에 대한 글과 만화, 아이디어 등을 올리고 광범위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

그동안 네티즌들의 안티조선에 대한 의사소통의 통로 역할을 한 ‘우리모두’의 이철우 대표는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선일보 허위·왜곡 보도 사례를 찾아 소책자도 발행하고, 조선일보 반대 스티커와 배지도 제작하는 오프라인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언론인들도 안티조선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하 전대기련)은 지난 달 14일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벌

이와 관련해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의 이유경 간사는 “이제 안티조선 운동은 몇몇 단체에 의해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안티조선연대에 포함된 5개 단체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라며

“안티조선연대에서는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전시회와 자료집 제작, 문화행사 등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시민강좌에서 강준만 교수는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것은 단지 한 신문이 아닌 모든 수구 기득권 세력에 항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안티조선연대의 출범은 안티조선 운동이 이제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았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0년은 노력해야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는 안티조선연대 상임대표 김동민 교수의 말처럼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조선일보 반대 운동의 앞으로 모습이 더욱 기대가 모아진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피지컬 시어터 페스티벌

독특한 몸짓, 문화장벽 허물다

신체 통한 한·일 문화 교류에 새로운 대안 제시



제2회 피지컬 시어터 페스티벌 출품작 '개구리들의 댄스파티'.

언어장애인은 손으로 대화를 나누고, 동물은 울음 소리로 위험을 알리며, 벌은 춤으로 꿀이 있는 위치를 표시한다. 그리고 여기, 몸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이들이 있다.

지난 1일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그리고, 파란(波瀾)은 시작되었다!'라는 주제로 피지컬 시어터 페스티벌이 열렸다.

지난해 도쿄공연에 이어 2회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은 '문화, 환경, 역사'의 테두리에 묶인 신체를 풀어 한·일 양국의 국경과 민족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만남의 장을 열어보겠다는 취지로, 대사없이 몸짓을 이용해 극을 이끌어 나가는 신체극(Physical Theater) 4작품을 선보였다.

한국측은 신체극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나라 관객을 위해 바리데기를 단군의 딸로 설정한 '밀레니엄 베이비·바리데기'와 부조리 작가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 '승부의 종말'을 미임으로 재구성한 '개구리들의 댄스파티'를 선보였다.

일본은 여러 종류의 밧줄을 이용해 세상사를 이야기하는 '밧줄', 젊은이가 추구하는 낙원을 오감으로 표현한 '낙원'을 무대에 올렸다.

지난 5일까지 닷새동안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은 신체극뿐만 아니라, 한·일 연기술 비교에 관한 워크숍과 한·일 연극의 가능성, 한·일 교류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뒤따랐다.

그중에서도 지난 1일 개막축하 공연으로 열린 제즈 트리오 '동그라미'의 Live 콘서트는 1백 여명이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의 아담한 소극장에서 한·일 음악교류의 한 장을 이루어냈다.

1990년 결성된 이래 특정 장르에 얽매임 없이 자유로운 즉흥연주를 선보여 온 동그라미는 공연 전, 연주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마치는 시간만을 정해놓고 공연에 임했다. 하지만 이들의 연주는 기존의 제즈 리듬과 형식을 벗어난 재, 불협화음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는 음악으로 동그라미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전달했다.

색소폰으로 한국 민속악기의 전통 주법을 구사하는 강태환, 드럼·북·징 등 타악기를 이용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음악의 절묘함을 선사하는 다카다 미도리, 즉흥 피아노연주로 서로의 어긋남을 연결해 나가는 사토 마사히코로 결성된 이들의 음악은 관객과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사이 한·일 간의 벽을 허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가깝지만 만나라 일본과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피지컬 시어터 페스티벌.

큰 걸음을 뗀 것은 아니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펼쳐질지 기대해 본다.

표은영 기자
pisik20@dongguk.edu

달하나 천강에

식생활과 비판



노완섭
생명자원과학대
식품공학과 교수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살지 갈잎을 먹으면 죽게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아니 유전적으로 쌀밥이 주식이다. 조상 대대로 쌀밥에 길들여져 왔기에 곡기(穀氣)를 끊으면 그것은 곧 죽음을 뜻한다.

식생활의 서구화가 갈수록 가속화되어 국적없는 식문화가 우리의 식탁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 당뇨병, 비만증으로 죽기까지 한다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 날 사망원인의 1위가 각종 성인병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바로 잘못된 식습관으로부터 비롯된다. 해가 갈수록 쌀 소비량은 줄고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 민족은 어떠한 경우에도 채식과 육식의 비율이 최소 9:1 최대 7:3의 범위내로 먹여야지 이 범위를 벗어나면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고 수명을 단축하게 된다.

속되게 표현한다면 많이 쳐먹고, 퍼질러 놓고, 잠만 자면 걸리게 되는 것이 성인병이다. 따라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소식(小食)하고, 적당히 운동하고, 알맞게 자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었지만 지금은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전 국민이 과식(過食)하고 있다. 생리적으로 포만감은 식사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야 느끼게 되어 있다. 따라서 수저를 놓는 순간에 포만감을 느낀다면 이미 과식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현명하게 가르쳤다. 한순간 더 먹고싶을 때 수저를 놓으라고.

과거 못먹던 시절에는 먹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하였기에 비만이냐 고혈압 같은 소위 성인병을 잘 먹는 부자들만 걸린다하여 부자병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정 반대로 흡수하는 칼로리보다 소비하는 칼로리가 턱없이 적다보니 비만이 될 수 밖에 없다.

일년에 음식 쓰레기의 양이 무려 8조원을 넘어 대전광역시민이 1년간 먹고도 남을 양이다. 이것을 절약하여 북한에 보낸다면 북한의 식량문제는 가볍게 해결될 수 있다.

무병장수하려면 덜먹고 땀시다. 땀은 것 이상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영혼 결혼식

김유신과 천관의 사랑 ... 역사 재조명하는 문화행사로

'첫눈 오는 날 ... 영혼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다' 겨울 하늘을 날다 지친 새들 앞에서 사랑하는 여자와 영혼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는 내용의 시 구절이다.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선뜻 죽음을 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이미 죽음이란 없다.

신라의 명장 김유신을 사랑했던 기생 천관도 마찬가지였다. 김유신의 어머니는 주색에 빠져 화문과 무예를 멀리하는 그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결국 김유신과 천관의 이루어 질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그녀는 머리를 깎고 속세와 인연을 끊는다. 하지만 천관은 김유신의 성공만을 기원하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이후 천관의 죽음을 듣게 된 김유신은 '천관사'라는 절을 지어 그녀에 대한 사랑을 간직한다.

오는 10일 오후 7시 경주 재매장에서 천관녀 설화를 토대로 한 김유신과 천관의 영혼 결혼식이 진행된다. 두사람의 애뜻한 사랑을 후세에서라도 맺어주자는 것이다. '천관제' 의식의 하나로 진행될 영혼 결혼식은 천관의 혼이 잠들어 있다는 천관사터와 김유신 장군묘에서 각각 자신제를 지내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침성대 옆 문화의 거리에 세워졌던 '월명제'는 월명스님과 보름달을 기리고 삼국사기의 내용을 재현한 문화행사로 높이 평가받았다. 그리고 이번에 기획된 영혼 결혼식 역시 역사를 다시 조명해 새로운 문화적 해석을 시도하려는



천관의 영혼이 서려있다는 경주 천관사터.

움직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색다른 문화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는 이흥열(경주박물관학교 교사)씨는 "큰 문화제를 중심으로 단순히 보고 듣는 것에만 그치고 있는 문화행사들은 이미 죽은 것이다"고 말한다. 수천년전의 과거를 살았던 김유신과 천관의 영혼이 어떤 표정과 복장을 하고 참석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들의 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어쩌면 역사의 뒷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이면에 귀기울이고 이색적인 행사로 치러내고자 하는 문화 실천의 움직임이 신선하다. 죽음과 삶이 연결되는 자리에서 문화와 삶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동성애 인권운동, 태풍의 눈

왜곡·편견에서 벗어나 인권적 열린 시각 필요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홍석천의 커밍아웃은 비단 개인의 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현재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이 홍석천을 부당 해고한 각 방송사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준비중이며, 더 나아가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로 확대해 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동성애자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동성애를 거부하는 것을 금기시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래 들어 사회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소외된 인권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성의 모태라 불리는 대학에서는 '동성애' 문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지난 학기 초 서울대는 국내 최초로 동성애 동아리 '마음 006'을 대학본부에 정식 등록했다. 일반인의 인권을 1백으로 보았을 때, 동성애자의 인권수치를 나타내는 숫자 6을 동아리명으로 딴 '마음 006'은 창단 초기에는 다른 학생들의 비난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 내 동성애를 보다 인권적으로 해석하려는 학생들과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려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현재 점차 그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이밖에도 연세대의 '컴투게더', 고려대의 '사

람과 사랑' 등 대학 내 동성애자 소모임이 활동 중이다. 아직 동아리로 인정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활동은 대학 내 동성애자 인권의 태동을 느끼게 하며, 동성애자 인권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본교 역시 동성애자 모임이 암암리에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왜곡된 시선이 많아 그 존재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동성애 동아리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은 없지만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무리가 따르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또한 많은 학생들은 그것을 머리로는 인정하면서도 가슴으로 진정 받아들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었다. 이처럼 본교의 입장은 동성애 문제가 아직 표면으로 떠오르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무관심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당신의 누나나 동생이 동성애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라며 세상을 향해 던지는 '마음 006' 김기호군의 질문은, 나와는 관계없다고 여겨 왔던 동성애자



제2회 퀴어영화제에서 상영된 동성애영화들.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더 이상 동성애자를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 무관심이나 배척이 아닌, 동성애자를 나와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고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동성애자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소나기

우리대학의 성의식은?



△성의식? 우린 이제 소년 소녀가 아니다. 서로의 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학내는... 피터팬 증후군인가?

△잘못된 성의식으로 인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가.

△여자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는 남자가 아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성은 어디까지인가...??? 우리 대학은 성차별이 없다! 김씨, 이씨, 박씨(최씨)의 등장입니다! 똑같이 돈내고 다닌다!^^

△왜 총여는 있고 총남은 없는거야!

△나는 처녀다.

△성의식? 성인식?

△늘 여성해방을 부르짖는 총여학생회 선거는 왜 맨날 총학선거일과 같이 할까? 진정으로 여성들은 해방을 생각할까?

△여자들은 내속 너무 한다.

△변태, 염기, 쇼크(Shock)뿐 이예요! 젠틀한 성문화 만듭시다.

△성(性)이야! 성(聖)이야!

△castle이야.

△신체 특정부위를 가지고 농담하는 일이 너무 많다. 그들도 꼭 똑같이 당해야 할까?

△범개하면 남자가 돈낸다. 여자도 돈내라 (남녀 평등하자!)

△제1의 성 : male

제2의 성 : female

제3의 성 : ? (ajoomma)

△그냥 그저 그렇다. 문란한 애는 문란하고 순수한 애는 순수하고 그러나 대부분 진짜 진짜 순수할까?

△반 성폭력 학칙제정, 하다 마는 것 아냐?

△장난기 어린 농담 한마디에 여학생들은 큰 상처를 받는다. π.π

△여성은 자판기가 아니다!

△대학생의 성문화 ... 동성애도 생각해 볼 문제다.

△박지윤, 성인식으로 찢지만 동양은 잘못된 성 인식으로 한바탕 난리...

△지성인이라 불리는 대학생들은 서로의 성적 존재를 인정하고 비방해선 안될 것이다.

△학생들 성의식을 바로잡아야 할 때.

서울 ☎ : 22603491·2
FAX : 22791270
경주 ☎ : (054) 7702058
FAX : (054) 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이메일 ID: dgu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천리안 ID: dgu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참치우거지국(1300) 제육김치볶음(1500) 오징어살러드(1500)
화	육개장(1500) 짜장밥(1300) 비빔만두(1500)
수	돈육꽃고추 찜개(1300) 비빔밥(1500) 닭도리탕(1500)
목	콩비지찌개(1300) 새우까스(1500) 사리곱탕(1500)
금	소고기버섯찌개(1500) 낙지볶음(1500) 햄볶음밥(1300)

(단위: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쇠고기만두탕(1500) 부대찌개(3300) 튀김백반(1300) 닭갈비(3300)
화	살랑탕(1500) 대구지리(3300) 제육볶음(1500) 더덕구이(3300)
수	햄선어찌개(1300) 육개장(3300) 순살돈까스(1500) 참치회덮밥(3300)
목	소고기당면국(1500) 김치보쌈전골(3300) 산채볶음밥(1300) 오징어불고기(3300)
금	순두부찌개(1300) 해물탕장찌개(3000) 비빔밥(1500) 칼릭스테이크(3500)

(단위:원)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전공기사 대책 제시 미흡 주제의 다양성 추구바람

1면에 실린 '전공선택 편중현상 뚜렷' 기사는 학부제 실시 후 나타난 전공 편중 현상이 학생들 사이에서 매우 예민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알려주었다. 또한 몇몇 학부의 각 전공별 선호도 차이를 나타낸 표의 활용은 매우 좋았으며 자신의 소신에 따라 국제학(구 아시아지역학)을 지원한 학생 멘트는 매우 신선했다.

그러나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대한 고민 없이 취업이 잘 되고 인기 있는 학과를 선택해야만 안심하는 학생들의 양상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 그리고 비인기 학과에 대한 장학 혜택 등 학교당국의 대책마련에 대한 내용도 부족했다.

김금엽(사과대 사학3) 이지성(인문대1)

수업시간 고려해 행사 진행돼야

지난주 경주캠은 학술제와 각종 행사로 온통 떠들썩했다. 이러한 행사의 취지는 나무랄 데가 없고 대학생으로 배울 점도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몇몇 학생들은 행사 때문에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잃었다. 그리고 주로 원효관에서 수업이 있을 때 그러한 권리를 침해받곤 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수업 도중 웬지 모를 민중 가요가 원효관을 잠악했다. 그때 나는 원효관 가장 큰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고, 담당 교수님도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분이셨다. 나는 수업 시간 인기 민중 가요 시간인지 착각하기도 했고, 귀를 찌르는 소음에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해 혼란스러웠다.

또 같은 날 원효관 4층에서 받은 수업 시간에는 한 동여리의 엠프 소리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물론 이들은 소강당이라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공연 연습을 하고 있었지만 학우들의 수업이 한창일 시간에 이를 주의하지 않았다는게 아쉽다.

대학은 문화와 어우러지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공동체이다. 작은 행사가 치뤄지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앞으로 행사추진측은 학생이 수업을 들으며 공부하는 시간대엔 행사를 뒤로 미루는 아량을 배울 수 있었으면 한다.

박성빈(경주캠 경상학부1)

공공기물 아끼는 의식있는 대학생이 되자

최근 학교에 학생들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겨났다.

미리내터나 정보문화관 옥상, 상록원 앞 등 학생들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공부도 하며 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다.

웁목으로 만들어진 의자들과 탁자, 뜨거운 태양이나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한 초록빛의 우산, 깔끔하게 조성된 이 공간은 학생들이 오고가며 작은 몸을 기댈 수 있는 안락한 휴식처가 되었다.

그러나 개선되지 얼마되지 않은 지금 이 공간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의식수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불과 한달 남짓 지난 탁자엔 갖은 오물이 묻어 있고, 그 오물들로 인해 악취가 풍기기도 하며 심지어는 개인적인 낙서까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나마 의자는 어느 정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탁자의 상태를 봤을 때, 의자의 깔끔함도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가장 기본적인 공공질서, 공공의식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모든 동국인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공공기물을 함부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어지럽힌 곳을 정리정돈하고 가는 것은 의식 있는 사람이면 당연한 일일텐데, 지성의 장이라는 대학 안의 우리는 과연 얼마나 남을 배려하고 있는지 씁쓸함이 감돈다.

윤호정(북한2)



가을동화... 헤화별관 앞에 새로 마련된 쉼터에 찾아온 가을. 단풍놀이 속에서 책 읽는 학생과 함께 가을은 깊어만 간다. 촬영=송광수 동문

깨끗한 화장실, 뒷사람에 대한 배려 주차 기본 인식해야

갑자기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갈때는 화장지를 챙길 여유가 없다. 화장실에 있을 것이란 생각이 마음놓고 있는데 화장지가 없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런 일은 나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화장실의 상태를 보면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관광객이 늘어난 오늘날 화장실 문화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공장소에서 제 것처럼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생각이 미흡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듯하다. 줄을 서서 기다리다 차례가 되어 들어가면 바닥에 침을 뱉었다거나 변기 속에 담배꽂이를 던져놓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아니면 화장지를 바다에 흐트러놓는 경우도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눈이 절로 찌푸러지고 사용하기 싫을 것이다.

또 불필요한 화장지를 뜯어서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는 자신들이 편하다는 것과 어차피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집에 있는 화장실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신들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하나가 뒷사람에게는 불쾌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누구나 뒷사람이 될 수 있다. 언제나 첫 번째 사용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자기가 뒷사람이 되어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 앞사람이 함부로 사용했다면 불쾌할 것이다.

학교의 화장실은 내 소유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것인 동시에 나의 것이기도 하다. 누구든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을 것이고 급하게 화장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나도 뒷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 뒷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화장실을 사용해야겠다.

박보경(법1)

타 학교와 비교할 때 우리 학교는 차량의 주차와 운행이 꽤 관대한 편이다.

주차료도 받지 않고, 주차를 위한 공간 또한 넓고 다양한 편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장소나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무렇게나 차를 세워둔다. 이는 학생회관과 우체국 사이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이 때문에 양 운전자끼리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시계탑에서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길 또한 예외는 아니다. 여기에는 주차금지라는 문구가 엄연히 게시되어 있는데 운전자는 이를 무시한 채 주차한다. 길을 뚫아 차를 막아두면 무용무익한 사람들이 난감할 할 것을 알면서도 이들에게는 오로지 도서관을 편하게 이용하려는 이기심만이 존재할 뿐이다.

주차 무료화 및 자율 운행은 학교측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배려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학생측에서도 기본적인 질서를 잘 지켜 진정한 대학생의 모습을 보여줘야할 것이다.

박경희(경주캠 불교아동1)



동악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조철원 인생 19년만에 드디어 솔로 탈출하다! couple forever~ 축하! 축하!

-화려한 솔로

△혜진! 생일 축하! 축하! 베리베리 축하!

-40+41+42

수고하셨습니다

△능금제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자방단 여러분...^^

-사과대00

열심히 하시다

△현아! 열심히 해라. 시분과의 미래도 네 두 어깨에...-(달려있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리랑 여러분 금요일 6시 상설 공연 열

심하, 파이팅!^^ -fan

그리고...
△선거관이 너무 썰렁하군요. 동악을 이끌어갈 이들이 정녕 없단 말인가?
△능금제 노래 자랑 때 스타 탄생! 멋있어요. 래퍼오빠!! -이쁜00
△병분이형! 다음에 또 헌전하죠^^
△삼우야. 책 빌려줘서 고맙다. 설 잘보면 내가 크게 한번 쓴다! -유어 프렌드
△재광아! 힘내!!! 너의 결연 내가 있단다^^ -문과대, 너의 친구
△태준아! 윤규아! 군대에서 잘 나왔다. -영이가
△정식이형! 문과대 파이팅이예요! 아자! -문과대 9인방
△상자야 내 밤 꼭 사주게. 물지마라~ 시간날 때 연락하마 -초중고 동창
△덕근 오빠! 정말 빈번이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형주 오빠! 노래자랑 못 가서 죄송해요. 꼭 가고 싶었는데... -국문00
△우리 이쁜 은정이는 사실 구미호래요.

온방글

축하합니다

△Newsweek 연구회 공개발표회 축하합니다. 고생 많았어요. 성공적인 행사가 되길 기원해요~ -96데바로 클럽회장
△오늘이 봄오빠가 군대간지 100일째. 넘 넘 축하해요. 미라가 보고싶데요. -현주
△11월 3일 영문과 3학년 최정아 생일 축하해^^ -귀선, 영희
△10월의 막말에 태어난 이석희 옹의 생신을 감축해요. 멋진 직장인이 되시길... 선배 사랑해요♡ -고미사 98 선주.종욱.영경
△간호학과 근제오빠 모의고사 1등 축하해요. 국가고시 열심히! -비보텔이가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가이드 활동 관광산업연구소 요원들 수고했어요. -1000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김치국(1300) 근대국(1300) 햄이채볶음밥(1600) 스키피티(1800)
화	아육국(1300) 재치국(1300) 돈까스(1500) 불고기덮밥(1700)
수	배추국(1300) 콩나물국(1300) 쇠고기볶음밥(1700) 설렁탕(1800)
목	복어채국(1300) 미역국(1300) 카레라이스(1500) 낙지볶음덮밥(1800)
금	산채국(1300) 어묵김치찌개(1300) 김치볶음밥(1600) 해물덮밥(1800)
토	시래기해장국(1300) 오징어덮밥(1600) 수제비(900)
일	짬뽕(1300) 하이라이스(1500) 수제비(900)

(단위:원)